【국어학의 산책】

청소년들의 튀는 언어와 한 술 더 뜨는 방송 언어

—청소년의 언어 사용에 영향을 주는 방송 언어의 오용 사례—

김기운

양정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1. 머리말

요즘은 그야말로 어디서나 방송의 위력을 실감한다. 주말 아침부터 무슨 팬클럽의 여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들의 대형 현수막을 줄지어 걸어놓고 삼삼오오 모여드는가 하면 가수들의 차량이 들고날 때마다 괴성을 질러대고 열광하는 것이 이제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말은 엄마와 아빠라는 단어보다 텔레비전을 통해 무심코 듣고 보게되는 말과 노래와 춤이다라는 어느 유아교육연구소와 시청자 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도 기억난다. 텔레비전은 이제 갓 말을 배우는 아이들의 정서와 생활에까지 이토록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체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체가 텔레비전 외에 어디에 있을까?

텔레비전 광고 방송을 통해 알려진 “자장면 시키신 분”은 이제는 고전 중의 고전이 되었고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니들이 게맛을 알어”는 이제는

“니들이 학생을 알어”, “니들이 방송을 알어” 등으로 새로운 의미로 확산되었고, 드라마를 통해 알려진 “나 떨고 있니?” “긴또깡” 등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수많은 유행어와 신조어들은 조금만 들여다봐도 텔레비전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이다. 이들은, 세인들의 입에서 한 단계 거치면서 새로운 의미들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유행어와 신조어의 남발도 시대적 흐름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말들을 모르면 청소년들의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한다고 하니 그저 방송의 위력과 영향력을 새삼 실감할 뿐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유행어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과 글을 살펴보면 오용과 남용을 넘어서서 그 훼손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 게다가 인터넷 상의 채팅이나 게임, 메일 상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상용어를 모를 경우 그들 사이에서 소위 “왕따”를 당한다고 하니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걱정스럽다.

“넘 잼있어 → 너무 재미있어”, “ㅊㅋㅊㅋ → 축하축하”, “ㄱㅅㄱㅅ → 감사감사” 등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예를 들었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훼손하는 예는 얼마든지 많다.

그런데 요즘의 방송 프로그램을 조금만 눈여겨봐도 방송이 청소년들의 유행어와 신조어의 전파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비속어와 유행어가 반드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일부 청소년들만이 사용하는 말들이 일단 이들이 선호하는 진행자의 입을 통해 방송망을 타면 급속히 확산된다. 특히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가수나 연기자 등 신세대 인기 연예인들의 입을 통해 이들 어휘들이 사용되면 청소년들은 무슨 특권처럼 이들 어휘들을 자랑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방송에서 사용된 무분별한 비속어와 외래어, 잘못된 언어 표현들은 부지불식간에 시청자인 청소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올바른 언어생활과 습관을 해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언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해야할 것이다.

불특정다수를 고객으로 하는 무차별 매체인 지상파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들 가운데 특히 청소년들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들을 모니터해 보면 이들 방송 언어의 오용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비속어나 유행어 가운데 요즘 중고등 학생들이 즐겨 쓰는 어휘들에 한해 간추려 정리해 보았다.

2. 비속어와 유행어의 남발

주로 십대의 중고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심야 프로그램에서 비속의 정도가 지나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들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비속어들인 것보다는 또래 집단에서 그들끼리 사용하는 일종의 튀는 말들인 것이다.

"장모님이 저를 보고 **뽕 갔다** 라고 하시던데요."/ "거짓말이면 **입을 찢어 놓겠다**"<텔레비전 (당신 곁으로)>, "**모가지**가 힘들었겠네"<라디오 (하하몽의 하이파이브)>, "바보, 니 명찰에 써 있어 이놈아, 좀 **짜져줄래**(가만히 있으라는 의미)/ 야, 나가 있어 **쌔앤**(선생님), 너무 재수 없어요/ 드러운 것들, 눈웃음이 짱이야/ 꼭 왕따 같은 애들이…"<라디오 (클릭B의 영스트리트)>, "**뒤지게** 두들겨 맞았거든요"<라디오 (파워타임)>, "이걸 준비하는 **골 빠개지던** 내부 진행자들도 한시름 놓는 행사가 되지 않겠는가"<라디오 (두시탈출)>, "돈을 빼돌려 **꽁쳐**"<라디오(뮤직라이브)>, "냅둬버려 **뒈져버리게**"<텔레비전(헤이헤이헤이)>, "안녕하세요, **애기** 양이에요/ **방가방가**"<텔레비전 (생방송 모닝와이드)>, "(운전면허를) **야메**로 땄어요"/ "**쪽팔렸다**"<라디오(아름다운 세상)>, "…**퉁 깐다**(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 그러죠…"<라디오(파워타임)>, "**쌩 까지** 말고 빨리 전화 받어/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빠돌이 빠순이**가 뭐냐/ 재국아 연초부터 이상한 글에는 **리플**도 달지 맙시다… 리플 달아주세요"<라디오(두시탈출)>, "**애기**는 합작으로 만들고, 애만 여자가 낳는다./ **열라** 나이트클럽에서 나만 **뺀찌** 먹는 거 아니야?"<라디오(고스트 스테이션)>, "이거 **쪼인트 까인** 자국이네"/ "**당근 빠떼루**지"/ "**뺀질이 잔대가리**"<텔레비전(태양 속으로)>, "누님이

머리 고기를 이따 **이따시**만큼 주셔서 배불리 먹었습니다"<텔레비전(대박가족)>, "당상 **빠따구리**죠(→ 당연하죠)"<라디오(파워FM)>, "이걸로 쓰면 **왓딴**데"<텔레비전(생방송 모닝와이드)>, "**주둥이** 테스트되겠습니다"/ "이런 **쪽팔림**이 또다시…", "넌 **후로꾸**야"<라디오(고스트 스테이션)>, "**후까시**를 있는 대로 넣고…"/ "**말을 얼마나 씹었는데**…"<텔레비전(재미있는 텔레비전 천국)>, "**뒷다마 깔 때마다**"<라디오(하하몽의 하이파이브)>, "비디오 보다가 **날밤 홀라당 까고**"/ "**뺀지 박았다**"<텔레비전 드라마 (정)>, "**뽕빠를 빼고** 돌려라"<라디오(고스트 스테이션)>, "**오케바리**"<라디오(기쁜 우리 젊은 날)>, "**구라 그만 푸시고** 깜찍한 노래 한번 불러 보시라니까요"<텔레비전 (휴먼텔레비전 유쾌한 세상)>, "**죽이네요**…./ 마누라는 그 날 밤도 잘 **자빠져 잤을** 테니까…"<라디오(고스트 스테이션)>, "사람 말 무시하고 **쪼개긴**(웃긴)"/ "**골로 보내버리게**", "**꼽냐**?<텔레비전 (별난 행운 인생대역전)>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 '뽕 갔다', '입을 찢어 놓겠다', '짜져줄래', '쌔앤', '뒤지게', '골 빠개지던', '쪼인트 까인', '이따시', '빠따구리', '쌩 까지', '후로꾸', '말을 씹다', '날밤 홀라당 까다', '뽕빠를 빼다', '뒷다마 까다', '오케바리', '구라 풀다'와 같은 비속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사뭇 충격적이다. 사실 이런 말들은 10대의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가 또래에서만 사용하는 비속어들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우상인 인기 연예인들이 이들 비속어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때 이들을 모방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들 언어는 컴퓨터의 악성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확산되어 버린다.

3. 외래어 남용

외래어 역시 국어의 하나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외래어의 대부분은 비속어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들이 선호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남용 사례들을 적잖이 발견할 수 있다. 또, 이들 방송에서 등장하는 외래어들은 대개가 버젓한 우리말들이 있음에도 비속하게 쓰이는 쓰레기같은 어휘들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고, 이들이 무분별하게 방송

매체에 등장하고 있다. 다음은 이들 외래어들의 남용 사례들이다.

"**대빵**답게 놀지… **무대뽀**식 애정행각에… **오야붕**이에요"<텔레비전(생방송 모닝와이드)>, "(오토바이 주유시) **만땅**이 2,000원밖에 안돼요"<텔레비전(좋은 친구들)>, "**타이아 빵꾸**난 거"/ "**도라무통**"<텔레비전(생방송 모닝와이드)>, "종로 **벤또**, **와리바시**…"/ "**세컨드로 닉**을 만들어 봐라, 답을 안해도 되는 **챈스, 초이스**가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하드한 걸로…"<라디오(영스트리트)>, "**삑사리**, **맛세이**, **히로**"<텔레비전 (진기록 팡팡팡)>.

4. 자막의 잘못된 표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자막을 규범에 맞지 않게 잘못 표기하는 사례도 많이 발견된다. 자막을 입력하는 사람의 단순한 실수와 부주의 보다는 정확한 표기법을 알지 못해 반복하여 오기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범에 맞지 않는 표기들은 이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청소년들에게 국어 맞춤법에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

영어 단어의 틀린 철자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정작 우리말 맞춤법을 경시하는 태도는 청소년들의 국어 사용에 또 다른 해악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말과 글은 바로 그 말과 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얼굴이고 정신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방송 제작진은 보다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들 자막의 오기들만을 모아 정리해 보았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뭐가 **틀려도 틀리다**(→뭐가 달라도 다르다)"<텔레비전(여자가 좋다)>, "**움추렸던**(→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여자가 좋다>, "발 **맛사지**(→ 마사지)"<생방송 모닝와이드>, "거기 **섯거라**(→ 섰거라)"<접속 무비월드>, "**오랫만에**(→ 오랜만에) 교복 입었다"<도전 퀴즈 퀸>, "지난주 정답을 모두 **맞춘**(→ 맞힌)"<진기록 팡팡팡>, "어디 양념이 잘 **베었는지**(→ 배었는지) 볼까"<여행쇼 일상탈출>, "인공조미료를 **일체**(→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생방송 모닝와이드>, "**웬일이야**(→ 웬일이야)"<좋은 아침>, "동북아 경제중심국으로 **발돋음**(→ 발돋움)"<대통령 취임식>, "**도룡용**(→ 도룡뇽)"<유쾌한 가족만

세>, “**어떻해**(→ 어떡해), 지금 나가 말어?”<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눈가리고 아웅(→ 아웅)”<8시 뉴스>, “참사 관계자 **육 명**(→ 여섯 명)이, 사법 처리, 방화자 포함 **칠 명**(→ 일곱 명)이 구속된 상태”<전망대>, “그야말로 **절대절명**(→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고 하는데요”<생방송 모닝와이드>, “동엽의 **재현**(→ 재연<再演>)”<맨투맨>, “산천어는 푹 **고와지고**(→ 고아지고)”<출동 VJ특급>, “남북, 오늘부터 **잇딴**(→ 잇단, 잇따른) 회담”<생방송 모닝와이드>, “(순창의 엿 고는 현장에서) **2번 다린다**(→ 2회 달인다)”<생방송 모닝와이드>, “유난히 **금술**(→ 금실)이 좋은 부부”<헤이 헤이 헤이>, “문 **잠궈 놓고**(→ 잠가 놓고)”<리얼코리아 세상사람들>, “**필림**(→ 필름) 끊으진 적 있으세요?”<맨투맨>, “천국에서 **사단**(→ 사탄)을 추방했어요”<접속 무비월드>, “분양권 시장 **떳다방**(→ 떴다방) 극성”<뉴스퍼레이드>, “신경질 내기 **일수죠**(→ 일쑤죠)”<콜럼버스 대발견>, “**쇼파**(→ 소파) 교환권”<도전 퀴즈퀸>, “어디 **신부감**(→ 신붓감) 없나요?”<좋은 아침>, “철도기관사 열차에 **치어**(→ 치여) 사망”/ “김치 **담아주지**(→ 담가주지)”<생방송 모닝와이드>, “(마음이) **설래일**(→ 설레일) 것 같아요”(○)<좋은 아침>, “**공인중계사**(→ 공인중개사)”<좋은 친구들>

5. 맺음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방송 매체 사이에 무한 경쟁을 요구하는 것 같다. 과거와 같이 만들면 보게 되어 있다라는 일방적인 논리로는 더 이상 텔레비전이 설 땅이 없어졌고, 앞으로는 방송사 사이에 경쟁은 기본이고 새로운 매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인가 교육 연수차 갔던 자리에서 벤처기업 최고경영자 한 분이 ‘영상 및 IT산업의 미래’라는 강의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 광통신이라는 혁명적 통신수단이 일반화되면 그야말로 정보혁명의 시대가 올 것이다고 하면서 그때가 되면 현재 각광받는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매체들도 그 자리를 새로운 매체에 넘겨주고 그저 소일거리나 오락용 기구 정도로 전락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미 속보 면에서 그 가치를 다한 신문은 화장실로 가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고 텔레비전은 그저 부엌

에서 주부들이 심심풀이 삼아 보는 오락기구 정도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었다.

위성방송과 케이블 텔레비전이 이미 방송되고 있고, 전파 매체에 있어서 국경이 허물어진지 오래된 지금 머지 않아 주문형비디오(VOD: Video on Demand)와 양방향 텔레비전까지 나온다고 한다니 그야말로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방송 환경의 변화는 예측 불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상파 텔레비전이 살아남으려면 과거와 같은 현실안주식의 서비스로는 안 되고, 그야말로 한 순간도 눈을 뗄 수 없도록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를 철저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방송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치열한 시청률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몇몇 인기 연예인들에게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길 수밖에 없고, 이들 중 대다수가 방송언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와 책임감 없이 감각적인 유행어와 비속어, 잘못된 언어 표현을 사용하다보니 청소년들의 언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언어 사용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민족 정신의 표상이라는 말도 있다. 우리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청소년들의 언어가 비속어들에 물들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학습기에 배우고 사용하는 말들은 이들이 기성 세대가 되었을 때 사용하는 말의 바탕이 된다. 그리고 이들의 말은 미래의 민족어이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최근에는 방송사 자체적으로도 뜻 있는 방송인들이 모여 방송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송이 앞장서서 바른 말과 바른 표현을 사용하자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방송관련 기관이나 시청자 단체들이 올바른 방송언어의 정착을 위한 세미나와 공청회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앞으로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